

다시 생각하는 출판의 상업성

송우혜

작가

지난해 세모가 가까울 무렵, 외국손님 한 분을 모시고 교보문고에 갔었다. 외국손님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말을 아주 잘하는 오십대의 중국동포, 그래서 느낀 감회는 여러가지로 특별했다.

“아,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그 분은 교보문고에 들어서자, 찬탄을 금치 못했다. 경복궁, 덕수궁 등의 고궁에도 모시고 가고, 북악스카이웨이와 인사동에도 모시고 갔었지만, 그가 그토록 압도당한 표정을 지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왕궁의 규모가 아주 작았었군요. 북경의 자금성은 그 크기만 해도…….”

고궁에 갔을 때, 그가 한 말이 그랬었다. 그는 우리말을 능숙하게 하는 우리 ‘조선족’ 임에 틀림없건만, 의식이나 행동거지는 본래 한족(漢族)인 중국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여기 와서 보고 듣는 것을 모두 자신이 국적을 둔 나라이 중국에 비하곤 했었다. 그러면서 은연중 한국에 안 끌리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그 중국동포가 서울의 책가게에서만은 경탄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는 책 매장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연신 놀았다.

“아!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런 책가게는 중국에 하나도 없어요. 심양에도, 북경에도 이런 서점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의 책방이란 정말 대단하군요. 이건 정말 중국에 돌아간 뒤에 한 편의 좋은 글감이 되겠어요.”

드넓은 매장 가득 들어찬 책, 책, 책들. 그리고 책 사려 온 사람, 사람, 사람들… . 그러한 서점 내부의 모습과, 그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나는 어떤 묘한 감흥을 느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대형서점 모습에서 ‘자본주의’라는 사회체제가 ‘출판’이라는 인간의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있는 그의 감각-, 사회체제가 다른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감각은 확실히 이쪽의 의표를 찌르는 데가 있었다. 그는 갔다. 그러나 그때의 추억은 그가 간 뒤 오히려 생생하다.

요즈음, 우리 출판계의 ‘상업성’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출판업 역시 사업의 일종이다. 그 속성상 상업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즈음처럼 노골적으로 ‘책’을 ‘상품’의 한 종류로만 취급하는 풍조가 보편화되는 현상은 저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마음 아프다. 그것이 이른바 자본주의의 한 모습, 또는 그 전개과정의 일부라고 해도 그렇다.

모든 현상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서 빚어져 나와서 인간에게로 돌아간다. 출판업에서의 ‘상업성’ 문제 또한 그렇다. 상업성이 발휘하는 활기와 그 역동성을 살리면서, 그것이 지닌 독소 또한 예리하게 깨뚫어 보고 그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출판문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뉴스 2 출판협회 제46차 정기총회·외

포지인물 4 사랑의 한의 정서 녹아든 민족의 노래
「아리랑」연구서 및 자료집 전3권 펴낸 박민일 교수

리뷰 6 민속자료 채록작업 어디까지 와 있나
구비전승 분야에 치중돼 생활·의식 부분 등은 미약

집중취재 8 신간정보 서비스 다양화·첨단화한다
‘책을 찾아드립니다’ 등 각종 프로그램 잇달아 개발돼

초점 10 가벼운 대중문화 진지한 문화이론
90년대 문화현상 가능하는 잣대 제공해

서평 12 김태준 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임철호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 박길성

13 허천 「페로디이론」— 장경렬
플라니 외 「지적 자유와 의미」— 박순영

14 프리처드 「USA투데이」— 유재천
한상철 「한국연극의 생점과 반성」— 이상일

15 정찬 「완전한 영혼」— 김태현

출판화제 16 묵은 책 리바이벌, 왜 봄 이루나
‘재탕’과 ‘부활’의 양면적 시각 공존

17 상업화 가능성 점증하는 ‘작은 출판’
데스크탑 방식 이용한 1인출판 실용화 단계

화제의 책 18 희귀자료 망라한 포토저널리즘의 역사
최인진 저자 「한국신문사진사」

이 책 그 사람 20 「우리 둘이」 펴낸 김현씨
「못생긴 텁모델…」 낸 김동수씨
21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낸 정호승씨
「여대생을 위한 취업안내」 낸 김미악씨

특별기고 22 “책을 베개로 삼아 편안히 주무시라” — 이상보
한국출판학 선구자 故안춘근 선생을 기리며

독자투고 23 대구지역 서점가 형성의 어제와 오늘 — 차석규
일제때 일선당서점이 효시… 현재는 100여곳 달해

논문초 24 비공식거래 급증으로 이원화구조 심화

리포트 26 “소급효 원칙 적용될 경우 부담 크다”

이색기획 27 독특한 시각 돋보이는 성풍속의 사회사

세계의 책 28 오페라 전문가가 쓴 오페라 스타 전기 — 배병삼

30 독자서평

32 화제의 시간

34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8 프리즘/재미있는 책 이야기/정기구독 안내